

세계적 양산의 환경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허심을 잡아라”

〈허정무 감독의 마음〉

축구 대표팀 남북대결 대비 오늘 소집

해외파 중용... 남은 자리 국내파 경쟁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 남북대결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시 모여 담금질에 들어간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낮 12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 소집돼 이날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17일 발표된 소집 훈련 대상자 24명중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설기현(풀럼),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김남일(بت셀고베), 오범석(사마라FC) 등 해외파 6명을 제외한 K-리그 1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남일은 하루 늦은 21일 귀국해 대

표팀에 합류하고, 나머지 해외파들은 남북대결이 펼쳐질 중국 상하이에서 23일과 24일 허정무호에 가세하게 된다.

소집 명단에 뽑힌 태극전사들은 43명의 예비 엔트리에서 살아 남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경기 최종엔트리 18명 안에 들고 출전 기회까지 얻으려면 짧은 훈련 시간 중 허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K-리그에서 일단 검증 받은 국내파들은 '바늘 구멍' 앞에 섰다. 지난달 6일 서울에서 치른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예선 1차전(4-0 승)에서 허 감독은 이번엔 호출한 해외파 6명을 모두 출전시켰다. 김두현만 전방 39분 교체 투입됐을 뿐 나머

지는 모두 선발로 나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인방과 오범석은 풀타임을 뛰었다.

당시 경기 후 “해외파가 가세해 중심을 잡아줬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허 감독의 신뢰가 두터워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골키퍼를 제외한 국내파 필드 플레이어들에게 돌아갈 자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해외파들의 포지션을 감안하면 최전방 공격과 중앙 수비, 미드필드 한 두 자리가 국내파의 몫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최전방 공격수만 하더라도 조재진(전북)과 박주영(FC서울) 등이 K-리그에서 골 맛을 보며 부활을 알린 국내파들 생존 경쟁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대표팀은 22일까지 파주에서 훈련한 뒤 23일 오전 상하이 원정길에 올라 26일 오후 8시 흥커우스타디움에서 북한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의 루니’ 정대세

“대세를 잡아라”

北 대표팀 간판 정대세 남북대결 경계 1호

‘아시아의 루니’ 정대세(24·가와사키)가 예상대로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대결 때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을 이끌게 됐다. 일본 프로축구 가와사키 프론타레는 1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대세가 북한 대표팀에 선발돼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에 참가한다”고 알렸다.

구단 발표에 따르면 정대세는 24일 북한 대표팀에 합류해 27일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정대세는 지난달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일본, 한국과 대결에서 거꾸 골을 터뜨려 공동 득점상을 수상하는 등 북한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다.

정대세는 최근 일본 조선학교의 후배들을 위해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대세는 지난 17일 팀 훈련 때 방탄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나도 위대한 선배의 인터뷰 등으로부터 영향

을 받았다. 후배들이 장래에 내 영상을 봤다고 말해준다면 기쁠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이번 인터뷰 내용 등을 포함한 영상 자료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선배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앞으로 체육수업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 대표팀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안영학(30·수원)은 부상으로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영학은 지난 9일 대전 시티즌과 K-리그 개막전에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2~3주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19일 “안영학의 대리를 통해 18일 북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차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진단서 등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부상 선수의 경우 해당 축구협회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협회의 판단에 따라 대표팀 소집에서 빠질 수 있다.



“내 불이야” 19일 안산외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1차전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삼성생명 이종애(왼쪽), 김세홍과 신한은행 이연화(가운데) 등이 리바운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69-58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세계무대 겨냥’ 베테랑 캐디 허든 영입

신지에 ‘날개’ 달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적수가 없는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가 세계무대를 겨냥해 새로운 병기를 마련했다.

신지에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캐디백을 썼던 베테랑 캐디 딘 허든을 영입했다. 이달부터 9개월간 국내의 대회에서 신지에는 도울 허든은 주급과 숙식, 교통비 등을 합쳐 1억원 이상 고액 급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국내 선수가 전담 캐디를 두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연봉 1억원이 넘는 최고 수준의 외국인 캐디를 고용한 것은 신지애가 처음이다. 허든은 미국에서는 2년 밖

최경주·구선 ‘샷대결’

4월 SK텔레콤오픈 참가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올해는 더 자주 국내 골프팬과 만나게 됐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 2008 대회조직위원회는 4월17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키야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최경주가 출전한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제주에서 끝난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 최경주는 9월 열린 신한동해오픈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올해에만 세차례 국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한편 US오픈을 두차례나 제패한 레티프 구선(남아공)도 방한, 최경주와 우승컵을 다툰다.

기업은女공기권총 사격팀

한국신 ‘탕탕탕’

기업은행 여자 공기권총 사격팀이 처음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기업은행은 19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종합경기장 내 사격장에서 열린 제5회 동해무릉 전국실업단체 사격대회 둘째날 여자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최현이(388점), 정지혜(387점), 김병희(383점)가 1천158점을 합작해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전남도 골프장 홀당 입장객 최다

따뜻한 날씨·풍성한 음식 등 골퍼들 유혹

지난해 5천89명... 제주도 보다 91% 많아

전남도에 산재한 골프장이 특색있는 필드 조성과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전국에서 홀당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골프장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골프장 홀당 이용객 수는 지난 2006년 4천32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5천89명으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이는 제주도의 지난해 홀당 이용객 수 2천657명에 비해 무려 91%나 많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다음으로 경남 4천938명, 충북 4천598명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겨울철 다른 곳에 비해 바람이 적고 따뜻한 기후와 특색있는 골프장 조성 및 각종 대회 유치·홍보 등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에서는 남도만의 특색있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한옥 그늘집, 사계절 꽃이 피는 필드, 국악이 흐르는 라운지 조성 등 친환경골프 시설을 사업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수도권 골퍼 유치를 위해 CO-EX, SETEC에서 개최되는 골프박람회에도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초·중·고·대학부 및 시니어·부부동반 등 각종 사회단체 초청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골퍼들이 직접 남도의 골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

골프·전남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톡펠러 회원권

최저 「톡펠러 회원권」의 상품가격은 세세 필드권 평가상 및 오레토트먼트 등으로 확장 가능 하였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가 되었습니다.

상담 전화 (062)351-0095